

# 이재명 “파 한뿌리 875원” 소리 했다면 공천 취소했을 것”

“공직자의 생각과 자세에 따라 사회 방향 달라져”  
“저는 사람 잘 골라 쓰는 편...공천 잘 하지 않았나”  
“정치인은 경쟁시켜야, 계속 한 사람만 쓰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모든 역량을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그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말래도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진구에서 열린 서은숙(진갑) 후보 지지 유세에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사적 이익이라면 결코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도 없고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짧지 않은 시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게 가졌던 신념은 공직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

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총지한 일꾼 서은숙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해야 부산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냐”며 “제가 나쁜 사람을 잘 골라 쓰는 편이다. 이번 공천도 잘 하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이 대표는 “정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공천”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국정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고, 선거에서 더 훌륭한 인재들을 골라서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들이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 근처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

파 한뿌리 875원 그런 말 한 사람 밖에 없어. 쓴 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은 불행하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어떤 권력자에게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는 그 권력자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 “임금님 별거벗고 다녀도 ‘이쁜 옷입시다’, ‘패션이 멋있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별거숭이가 돼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권력을 가진 본인에게 있다”며 “만약 저라면 파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를 하면 저는 공천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못 해도 계속 시키고 게으르고 무능해도 계속 시키면 결국 그들이 잘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결국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잘 되게 하길 원하면 이번 4월 10일에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포기 마시고 주변에도 당신이 포기하는 것은 투표와 주권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동철(수영)·최택용(기장) 후보 지역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 울산으로 이동해 박성서(남울)·전은수(남갑)·김태선(동구)·이선호(울주) 후보를 차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 조국혁신당 지지율 돌풍 계속...총선서 11~14개 의석 챙긴다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20%를 상회하는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까지 이 같은세가 이어지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4·10 총선에서 최소 11개에서 최대 12개의 의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의뢰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행사하겠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앞서 3월 1주차 조사 14%, 3월 2주차 조사 19%에 이어 이번엔 20%선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이에 비해 조국혁신당과 지지 기반을 공

NBS 여론조사서 조국혁신당 23%...3차례 조사 연속 상승세

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세 차례 연속 지지율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연합은 ‘17%(3월 1주차)→16%(3월 3주차)→15%(4월 1주차)’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연합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조사에선 지지율 3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 지지율을 보였다. ‘그외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였고, ‘없음·모름·무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낮으면 모자란 의석의 50%를 채워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띄운 비례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산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총 의석수 46개 중 각당이 확보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을 고스란히 가져간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이 가져갈 비례

대표 의석(46개)을 배분하면, 최소 국민의미래 15석, 조국혁신당 11석, 더불어민주당은 7석을 각각 챙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수정당의 경우 비례 의석 배분 요건인 ‘최소 3%’ 득표율을 받으면 1석을 챙겨갈 수 있으나, 득표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 진입이 불발된다. 이날 기준으로 보면 개혁신당만 1석을 챙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까지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보층(23%) 표심에 따라 각당이 확보할 최종 의석수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이 선거 당일 ‘거대 3당’으로 현재의 각당 지지율에 비례해 흠뻑어진다고 가정하면 최대 국민의미래 19석, 조국혁신당 14석, 민주연합 9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유나기자

## 한동훈 “깜깜이 전 여론조사, 맞는 게 있었나”

“범죄자들에게 나라 놀아나면 안 돼” 투표 독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론조사 결과 따위 있어버리시라”며 “투표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만 모든 걸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낮 12시에 롯데백화점 건대스타티피점 앞에서 김병민(서울 광진갑)·오신환(서울 광진을) 후보 지원유세 중 “지금까지 총선 직전 깜깜이(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진행되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중 맞는 게 있었나, 없었나”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음 정하시는 시기는 지금부터 투표할 때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직접 언급하면서도 이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좀 전에 NBS 여론조사 결

과 나왔던데 저희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면서 “(그 조사가)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건 지고 어떤 건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39%),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39%),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국민의미래·31%)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3%,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한 비대위원장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저와 김병민, 오신환은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을 내일 투표장에 나가서 보여달라”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언급된 여론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